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일본/도쿄지사)

I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2021.6월]

1. 김치 제품의 통관시 위생 검역관련 주의사항

- 한국산 김치에서 대장균 검출 유사사례 발생으로 인한 주의 필요
 - 최근 대일수출된 한국산 김치제품에서 병원성 대장균의 일종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시 됨
 - 일본 검역소 정보에 의하면 검역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결과 한국산 배추김치에서 병원성 대장균의 일종인 O-168이 검출된 사례가 발생함
 - 병원성 대장균의 경우 통상 O-157 등이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O-168의 경우 독성은 미약하나 병원성 대장균의 일종으로 위생검역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식안감발1120제3호(2014.11.20.) 통지문을 통해 각 검역소에 O26,O103,O111,O121,O145,O157에 대해 검사법을 제시하고 장관성출혈성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번에는 상기 검사법 이외의 방법으로 검출된 사안임
- 일본절임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상 일본내 김치류 제조업체의 경우 김치원료에 대한 살균시 하이포 아염소산나트륨 농도 100mg/l 에 10분간 또는 200mg/l에 5분간 침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자료: 일본절임협동조합연합회 제정 가이드라인>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du/0000201294.pdf>

2. 시사점

- 일본 수출 제조 김치류의 경우 배추원료 등에서 대장균 오염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증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살균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제조공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 통관동향 등 이슈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각 검역소에 통보한 2021.7.27자 문서에 의하면 한국산 깻잎에 대한 잔류농약 모니터링 검사를 과거 1년간의 검사실적 등을 감안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검사 완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2. 변동사항

- 그동안 30% 모니터링 검사강화를 실시해온 teflubenzuron성분에 대해 검사강화를 해제한다고 통보함
 - ※ 동성분은 2020.7.14부터 검사강화되어 왔으며 1년간 검사결과 무위반 되었기에 금번 해제조치됨
- 현재, 들깻잎에 남아있는 모니터링 검사강화 성분은 테트라코나졸 (TETRACONAZOLE) 1개 성분으로 해당 성분도 1년이 경과되는 금년 8월말경에는 해제 될 것으로 전망됨
- 단지, 명령검사로 계속되는 성분은 인독사카브 및 파클로부트라졸 2개 성분이 유지됨

3. 기타 주의사항 등

- 한국산 고춧가루에 대해서도 신선고추의 간이 가공품에 해당되어 잔류 농약 모니터링 검사 강화(전체 수입건수의 30%) 상태로 주의 필요함

위반공표일 (통보일)	품명	수량 (kg)	농 약 검 출 (ppm)		일본기준	한국기준
			성분명	검출치		
2021.01.15.	들깻잎	100	Indoxacarb	0.02	0.01	20.0
2021.01.19.	풋고추	520	Propiconazole	0.02	0.01	1.0
2021.01.22.	풋고추	790	Hexaconazole	0.07	0.01	0.3
2021.03.17.	풋고추	3,000	Tricyclazole	0.06	0.01	0.01
2021.03.17.	홍고추	100	Tetraconazole	0.4	0.3	1.0
2021.04.08.	홍고추	90	Hexaconazole	0.20	0.01	0.3
2021.04.13.	참외	510	Chlorfenapyr	0.02	0.01	0.5
2021.05.20.	풋고추	2,700	Hexaconazole	0.03	0.01	0.3
2021.05.24.	풋고추	1,500	Tebufenpyrad	0.04	0.01	0.5
2021.06.21. (2021.06.16.)	참외	450	Procymidone	0.03	0.01	0.01

2021.06.21. (2021.06.18.)	참외	1,846	Chlorfenapyr	0.02	0.01	0.5
2021.06.24. (2021.06.22.)	고춧가루	45	Propiconazole	0.06	0.01	1.0
2021.06.30.	풋고춧가루	176	Fluquinconazole	0.02	0.01	0.7
계	13회 위반	(들깻잎1, 풋고추5, 홍고추2, 참외3, 고춧가루1, 풋고춧가루 1회 위반)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6월)

- 신선 참외 위반 사례
 - 한국산 신선 참외에서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는 정도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기준치 위반 사례가 2건 발생함
 - 위반품목 : 참외
 - 위반 성분 1 :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0.03ppm(기준치 0.01ppm) / 위반일 6.21
 - 위반 성분 2 :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0.02ppm(기준치 0.01ppm) / 위반일 6.21
- 고춧가루 및 청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 위반 사례 발생
 - 고춧가루 및 청고춧가루에서 각기 잔류농약 위반 사례가 발생함
 - 고춧가루 :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0.06ppm(기준치 0.01)
 - 청고춧가루 : 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 0.02ppm(기준치 0.01)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https://www.mhlw.go.jp/content/000799874.xls>

2. 시사점

- 참외의 경우 최근 화교계에서도 인기이며, 코스트코등에서도 판매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어 최근 발생하는 잔류농약 위반사례로 인해 소비자들에 대한 안전성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시 됨
- 고춧가루의 경우 신선고추의 간이가공품으로 분류됨으로 인해 신선고추류에서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도 동일한 성분에 대해 상호 연계되어 규제 대상이 됨으로 주의가 필요시 됨

3.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1. 6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70건이 발생함(식기류 제외)
- 6월중 한국산 식품위반사례는 신선참외에서 잔류농약 위반 2건, 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 위반 2건, 냉동계에서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 양성으로 2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 및 항생제 등 위반사례가 22건(31.4%),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부적합, 첨가물 위반이 8건(11.4%), 냉동식품 등의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균 검출 등으로 인한 위생위반이 27건(38.6%), 아플라톡신 검출위반 10건(14.3%) 등으로 나타남

4.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6월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13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중 18.6%를 차지함. 활바지락등에서 잔류농약 위반 3건, 냉동브로콜리 등에서 대장균균 양성 등 위생위반이 4건 위반이 발생함.
- 해바라기씨에서 첨가물 위반 2건등 첨가물 위반이 모두 3건 발생함

○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미국산은 신선아몬드, 땅콩류, 옥수수 등에서 모두 아플라톡신 위반으로 계 6건이 발생함

○ 태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쌀에서 곰팡이 등이 발생하는 위생위반이 3건, 닭튀김에서 대장균 양성 위반 1건 등 모두 4건의 위반이 발생함

○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사례

- 신선레몬등에서 잔류농약 위반이 4건, 냉동 새우류에서 대장균균 양성 등의 위생위반이 5건 발생함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

<표2>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

국가명	위반건수	위반율	잔류농약 및 항균제등	아플라톡 신	위생	첨가물	기타
중국	13	18.6	3		4	3	3
베트남	12	17.1	4	1	5	2	
이탈리아	7	10.0	1	2	2	2	
미국	6	8.6		6			
미얀마	6	8.6	6				
한국	6	8.6	4		2		
대만	5	7.1			5		
태국	4	5.7			3	1	
기타	11	15.7	4	1	6		
합 계	70	100.0	22	10	27	8	3
	비율(%)		31.4	14.3	38.6	11.4	4.3